

무주반딧불축제 '최우수'

5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 '쾌거' 환경·체험·소득·가족축제로의 가치 각인

무주반딧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로써 20년 전통의 무주반딧불축제는 3억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5년 연속 최우수축제의 영예를 안게 됐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7년도 축제평가에서 △주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차별성 부각, △반딧불이 신비탐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무주아리랑" 등 주제공연을 비롯한 전통놀이 시연, 자

원봉사활동 등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주민동참, △"반디한첩" 등 음면별 대표 음식을 기반으로 한 향토음식관 운영, △축제장 공원화, △휴게공간의 확대 및 운영, △20돌맞이 축제 역사 전시관 조성, △문화교류전 및 캠퍼스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등 환경축제, 소득축제, 가족축제로의 특성과 콘텐츠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도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선정의 동력이 됐던 제20회 무주

반딧불축제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됐으며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낮에도 반딧불이와 다양한 곤충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었던 반딧불이관 운영, 캠프와 반딧불축제 주요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즐길 수 있었던 엄마 아빠와 1박 2일 생태탐험이 특히 인기를 모았다.

또한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14개 마을이 함께 했던 마을로 가는 축제도 사파수확체험을 비롯해 식용 곤충으로 음식만들기, 흙옥수수떡 체험, 고추장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제9회 반딧불등유제 대상 출신 김효진 씨(25세, 한양대 석학과)가 출연했던 개막식 반디 갈라 콘서트를 비롯해 국악 작곡가 김대성과 크로스 오버 테너 임태경이 만나 무주를 교향곡으로 표현했던 "무주아리랑 음악제"도 이목을 끌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관객 여러분이 남치는 사랑과 반딧불축제를 지역의 브랜드로 지켜나가려는 군민들의 노력이 5년 연속 최우수축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대표 축제 도약을 통해 지역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 모습.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문화관광축제로 우뚝

3년 연속 유망축제 선정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7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즐거움에 날아오르다"를 주제로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추억과 야생을 표방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특히 다양한 방식의 천렵체험(맨손으로 물고기잡기, 족대체험, 어병체험), 화덕체험 등은 관광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았고, 가을음식축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올해로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관광축제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문체부가 인증하는 관광브랜드로 지역의 다양한 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국내관광객은 불



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일리고 육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문화관광축제는 등급별로 관광진흥개발기금(국비) 차등해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통해 맞춤형 홍보·마케팅 등 간접 지원을 받게 되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도심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야생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추억거리를 준비하여 앞으로 우수축제로 도약을 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전국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정농산물원

행사문의
진안고원 정농산물원
063-430-2951

무주군의회 '신통방통제' 눈에 띄네

신문·방송 통해 119건 정책 자료 수집

무주군의 회(의장 유송열·사진)가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의정활동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신통방통제'가 2016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시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년의 회기 중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 신문·방송을 통해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119건의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구절벽 등 군정현안에 대해 폭넓은 질문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

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회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신통방통(新通放通)은 '신문으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한다'는 뜻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우수·모범사례, 개선사항, 문제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제도로서 2016년 9월부터 무주군의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신규시책 중 하나다.

유 의장은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도입한 지 채 4개월 남짓 된 시책임에도 의원들이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의회가 단순히 비판이나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의회를 구현하는데 '신통방통제'가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삼락농정 발전협 구성

장수군이 전북도 핵심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락농정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삼락농정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군은 해당 협의회 구성을 통해 도에서 추진하는 삼락농정의 각종 시책에 맞춰, 장수군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보람받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을 위한 장수군 삼락농정 발전협의회는 행정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 농업관련 단체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 장수군의 농업정책 발굴 및 농정현안 공유와 소통 강화로 농업 발전계획 수립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내년 친환경 농업 51억 투자

진안군은 2017년도 친환경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재지원, 기반조성, 유통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에 51억원을 투자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벼농사에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는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을 올해 1,415ha에서 내년에는 1,600ha로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은 현재 555ha에서 600ha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군은 우선 자재지원 및 기반조성 분야에 유기질 비료 13억400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 4억3,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억8,700만원, 친환경자재지원사업 4억8,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35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기농산물 조성사업 6억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육성사업 4억8,000만원 등 5개 사업에 11억3,900만원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주민건강검진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1월25일~1월31일 제외)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017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40세상 홀수년도 출생자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만19세~만64세 세대주 및 만 40세~만64세 세대원)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전주 열린병원과 연계해 암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을 실시하므로 장수군내에 암검진기관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건강검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063-350-3123)과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4-H연합회, 성공 기탁

무주군 4-H연합회(회장 이상훈) 회원들이 감자와 배추 과채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 2백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공으로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무주군에 기탁된 성공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훈 회장은 "올 한해 회원들이 자신의 농사뿐만 아니라 바쁜 4-H행사와 교육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땀 흘려 연구하고 일한 보람을 좋은 일을 통해 찾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에 앞장서고 더불어 함께 하는 무주 실현을 주도하는 무주군 4-H연합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 4-H연합회에 따르면 감자와 배추는 무주를 당산리 소재 2,310㎡ 논을 임대해 운영했던 것으로, 3월 파종한 감자를 6월 수확 판매했으며, 배추는 2차로 재배해 판매했다.

무주=전문선 기자